

북

서양 화가들은 왜 음식 그림에 탐닉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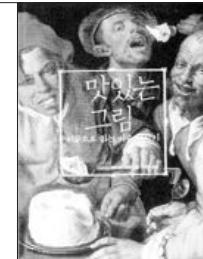


새책

Books

맛있는 그림

미야시타 기쿠로 지음



그림에서 짬맛, 쓴맛, 단맛이 느낄 수 있다면 일본의 미술사 교수인 미야시타 기쿠로의 '맛있는 그림'은 식사 장면이나 음식이 소재로 등장하는 미술작품을 통해 서양미술사를 소개하는 책이다.

'위작과 도난의 미술사' '무서운 그림'을 잇따라 출간한 광주 출신 미술이론가 이연식씨가 원작의 내용을 알기 쉽게 번역했다.

'혀풀으로 익는 미술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서양 미술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유명 그림에 등장하는 다양한 음식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서양미술사에서 음식이 중요한 소재였던 이유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풀어낸다.

지중해 나라들은 과거부터 요리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중요한 행위로 인식했다. 고대 로마의 지하 묘지에서 발견된 벽화에는 빵을 가득 담아 놓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품페이에서 발견된 벽화에도 다양한 요리가 표현돼있다.

특히 중세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음식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식사 풍경은 미술의 중심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다. 이 작품은 지난 1979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작업이 이뤄져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음식의 존재가 드러났다.

복원 전에서 빵과 포도주를 담은 컵 말고는 거의



서양 미술사에는 다양한 음식을 표현한 작품이 대거 등장한다. 사진은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표현한 자코포 바사노의 작품.

보이지 않아 다른 모사 작품들에서는 고기, 생선 등이 제대로 등장하곤 했다.

하지만 복원이 끝나자 테이블 위에는 물고기가 담긴 큰 접시가 보였고, 테이블 이곳저곳에 물고기 조각에 얹게 자른 오렌지나 레몬이 더해진 작은 접시들도 드러났다.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순간을 표현한 작품에 세속적인 음식이 대거 등장하는 셈이다.

저자는 '결국 먹는다는 것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많은 작가들이 지역, 주문자, 관객의 의도와 개성과 유행에 부응해 다채롭고 풍성한 음식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다.

카라바조(1571~1610)의 1601년작 '헵마오의 만찬', 반 고흐의 '감자를 먹는 사람들', 르누아르의 '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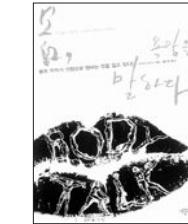
놀이하는 사람들의 점심', 앤디 워홀의 '캡벨 수프' 등 식사 장면이나 음식물을 다룬 다양한 작품들이 도과와 함께 소개된다.

서양미술사의 이런 특징은 동양미술사는 사뭇 다르다. 중국에서 가장 다양한 음식 문화를 만들었던 중국에서 조자 음식과 식사 풍경이 그림에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서양미술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음식 이야기가 더욱 흥미로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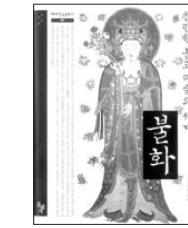
한편 복역자 이씨는 서울대 미술대학(서양화 전공),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서예가 학정 이동홍씨의 장남이기도 하다.

(바다출판사·1만5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옥망을 말하다=관음적 시선을 거두고 진짜 유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현대사회가 바라보는 유행에 대한 관점이 어떤 문제 있는지 조목조목 펼쳐 보인다. 식욕, 성욕, 정신적 유행에 깃든 지혜는 과연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혜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생각의 날개·1만5천원〉



은 삶을 사는 불운한 사람들을 대비시킨다. 〈문학과지성사·9천원〉



▲ 불화-찬란한 불교미술의 세계=불교회화사를 전공한 김정희씨가 우리 불화의 역사와 분류방법, 제작기법, 감상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불화 개론서다. 함께 수록된 300여 점에 달하는 불화 사진은 보는 기쁨까지 더한다. 우리의 대표적인 불화를 잘 좋은 도관으로 제시, 불화 안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물들에 대한 설명도 제공하고 불교의 교리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돌베개·3만원〉

▲ 이치고 동맹=일본 작가 미타 마사히로가 쓴 청소년 소설. 따뜻한 불날, 피아니스트를 꿈꾸며 연습중인 데이치 앞에 애구부 4번 타자 데쓰야가 나타난다. 며칠 후 데이치는 데쓰야의 손에 끌려 어느 종합자살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애구부 8번 타자 나오미를 만나는데...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나이 열다섯, 그빛나는 순간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슬프도록 맑은 문장으로 펼쳐진다. 〈문학동네·8천800원〉



▲ 불교 초보자를 100분 100답=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의 불교 문답풀이집. 수행, 고리, 생로병사와 윤리, 불교와 이웃종교에 대한 질문과 답들을 실었다. 3년 반 동안 김 교수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불교교리에 대한 질문의 답변 내용이다. 〈불교출판사·1만5천원〉



▲ 데미안·보르헤스와 함께 떠나는 카발라 여행=고대부터 서양 정신사의 바탕이 되어온 '카발라'. 유대교 신비주의로 불리는 카발라는 불교·인도철학·도교·역학 등 동양의 여러 사상과도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헤세의 '데미안'과 보통의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환상의 세계를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이는 현대 환상 문학의 선구자 보르헤스의 소설들을 카발라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풀어졌다.



▲ 레드 제플린=세상에서 가장 해비한 밴드 레드 제플린은 1968년 결성 당시부터 1980년 해체 할 때까지 세계의 최고 거울로 군림하며 록의 역사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레드 제플린의 40주년과 재결합을 축하하는 의미로 기획된 책. 록음악의 거대한 줄기로써 그들이 걸어온 길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그들의 음악에 대해 나타났던 대중의 반응과 평론가들의 비평까지 꼭 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뮤진트리·5만5천원〉

선비, 왕을 꾸짖다

신두환 지음



왕의 잘못 지적한 상소 통해 당시 시대상 엿보다

진평왕이 사냥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자 김후직은 사냥을 그만두기를 간했으나 왕은 듣지 않았고, 김후직은 병으로 죽기 전 왕이 사냥하려 다닌다는 길가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했다.

안동대학교 한문화과 신두환 교수는 역사상 유명하고 중요한 상소를 골라 해설과 함께 엮은 '선비, 왕을 꾸짖다-상소로 본 역사이야기'를 펴냈다.

우탁의 '지부상소'와도 우리 역사에는 힘을 힘으로 상소를 통해 지존이었던 임금에게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역사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상소문이 여럿 있다.

우탁은 충선왕이 선왕의 후궁을 범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삼복을 입고 도끼를 든 채 대궐에 들어가 왕의 폐덕(悖德)을 지적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이에 신하들이 놀라 벌벌 떨고 왕도 부끄러워 다시는 선왕의 후궁과 통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신라시대 김후직이 무덤 속에서 했다는 충간은 '묘간'(墓謙)이라고 해 선비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열다섯 살 난 평안도 기생 초월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다 못해 시대의 폐단과 임금의 잘못을 적어 올린 상소 등 다양한 분야와 내용의 상소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쪽같은 그들이 후세에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유를 알 수 있으며 당시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구한말 한일합방전의 서라는 상소문을 올려 친일파 내각으로 하여금 한일합방조약 체결의 구실을 만들어준 이용구의 상소와 한일합방성명서는 친일파들의 사상과 논리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부록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일본에 보였던 타국을 사대(事大)하는 글인 표(表)와 소(疏), 그리고 국서를 소개했다.

(달과수·1만9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그리고 1980년 7월 평안도 기생 초월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다 못해 시대의 폐단과 임금의 잘못을 적어 올린 상소 등 다양한 분야와 내용의 상소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쪽같은 그들이 후세에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유를 알 수 있으며 당시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구한말 한일합방전의 서라는 상소문을 올려 친일파 내각으로 하여금 한일합방조약 체결의 구실을 만들어준 이용구의 상소와 한일합방성명서는 친일파들의 사상과 논리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부록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일본에 보였던 타국을 사대(事大)하는 글인 표(表)와 소(疏), 그리고 국서를 소개했다.

(달과수·1만9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그리고 1980년 7월 평안도 기생 초월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다 못해 시대의 폐단과 임금의 잘못을 적어 올린 상소 등 다양한 분야와 내용의 상소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쪽같은 그들이 후세에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유를 알 수 있으며 당시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구한말 한일합방전의 서라는 상소문을 올려 친일파 내각으로 하여금 한일합방조약 체결의 구실을 만들어준 이용구의 상소와 한일합방성명서는 친일파들의 사상과 논리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부록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일본에 보였던 타국을 사대(事大)하는 글인 표(表)와 소(疏), 그리고 국서를 소개했다.

(달과수·1만9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그리고 1980년 7월 평안도 기생 초월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다 못해 시대의 폐단과 임금의 잘못을 적어 올린 상소 등 다양한 분야와 내용의 상소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쪽같은 그들이 후세에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유를 알 수 있으며 당시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구한말 한일합방전의 서라는 상소문을 올려 친일파 내각으로 하여금 한일합방조약 체결의 구실을 만들어준 이용구의 상소와 한일합방성명서는 친일파들의 사상과 논리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부록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일본에 보였던 타국을 사대(事大)하는 글인 표(表)와 소(疏), 그리고 국서를 소개했다.

(달과수·1만9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그리고 1980년 7월 평안도 기생 초월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다 못해 시대의 폐단과 임금의 잘못을 적어 올린 상소 등 다양한 분야와 내용의 상소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쪽같은 그들이 후세에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유를 알 수 있으며 당시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구한말 한일합방전의 서라는 상소문을 올려 친일파 내각으로 하여금 한일합방조약 체결의 구실을 만들어준 이용구의 상소와 한일합방성명서는 친일파들의 사상과 논리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부록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일본에 보였던 타국을 사대(事大)하는 글인 표(표)와 소(疏), 그리고 국서를 소개했다.

(달과수·1만9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그리고 1980년 7월 평안도 기생 초월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다 못해 시대의 폐단과 임금의 잘못을 적어 올린 상소 등 다양한 분야와 내용의 상소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쪽같은 그들이 후세에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유를 알 수 있으며 당시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구한말 한일합방전의 서라는 상소문을 올려 친일파 내각으로 하여금 한일합방조약 체결의 구실을 만들어준 이용구의 상소와 한일합방성명서는 친일파들의 사상과 논리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부록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일본에 보였던 타국을 사대(事大)하는 글인 표(표)와 소(疏), 그리고 국서를 소개했다.

(달과수·1만9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그리고 1980년 7월 평안도 기생 초월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다 못해 시대의 폐단과 임금의 잘못을 적어 올린 상소 등 다양한 분야와 내용의 상소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쪽같은 그들이 후세에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유를 알 수 있으며 당시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구한말 한일합방전의 서라는 상소문을 올려 친일파 내각으로 하여금 한일합방조약 체결의 구실을 만들어준 이용구의 상소와 한일합방성명서는 친일파들의 사상과 논리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부록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일본에 보였던 타국을 사대(事大)하는 글인 표(표)와 소(疏), 그리고 국서를 소개했다.

(달과수·1만9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그리고 1980년 7월 평안도 기생 초월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다 못해 시대의 폐단과 임금의 잘못을 적어 올린 상소 등 다양한 분야와 내용의 상소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쪽같은 그들이 후세에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유를 알 수 있으며 당시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구한말 한일합방전의 서라는 상소문을 올려 친일파 내각으로 하여금 한일합방조약 체결의 구실을 만들어준 이용구의 상소와 한일합방성명서는 친일파들의 사상과 논리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